

“봉사는 하나를 주면 백이 오는 일입니다”

이정진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사회봉사단장

“봉사는 내가 하나를 주면 백 가지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진 (53·사진)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사회봉사단장은 20년 넘게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 1996년 1월 광주 광산구 덕림동 정신지체장애인 생활관 ‘애일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봉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왔는데, 연신 “고맙다”고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단장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날 느꼈던 감정은 지금까지도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후 이 단장은 연탄 배달, 설비 점검, 외벽 보수, 멸종 생필품 전달 등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30일 “발로 뛰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동료들과 힘을 모아 손을 보낼 때마다 그

20여년 장애인·아동·미혼모 등 대상

연탄 배달·설비 점검·외벽 보수 지원

“제도적 기반·참여 기회 마련됐으면”

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며 “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함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봉사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 단장의 봉사는 단순히 물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보육원 봉사에 초등학교이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갔고, 미혼모 지원 시설에서는 손·발 도장 시계와 성상 앨범 등을 함께 만들어 아이와 엄마에게 선물했다.

처음엔 소극적이던 아들과 딸이 시간이 지나자 “이번 주말엔 어디로 가요?”라며 먼저 물었던 순간을 이 단장은 잊지 못한다.

반면 가슴이 무너졌던 순간도 있었다. 학대



를 피해 자립을 시도하던 청소년을 채용해 주려다 가족의 반대로 무산됐고,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형제를 도우려 했으나 보호자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결국 실패해 찾지 못한 사

례도 있었다.

이 단장은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힘든 상황들도 많았지만 오히려 더욱 봉사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내가 조금만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다.

이 단장은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 삶은 내색 없이 봉사에 함께해 준 아이들 덕분에 없던 힘도 솟았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봉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참여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도 시동이 걸려야 움직이듯 봉사도 마친가지라고 생각한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단장은 “봉사의 끝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언젠가 내가 그만두는 날이 오면 내 아이들이 그 길을 이어갈 거라 믿는다”고 미소 지었다.

/장은정기자



광주시·광주농협본부, 전남產 양파 소비 촉진 동참

전남도는 30일 “광주시와 광주농협본부가 2025년산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산 양파 사주기 운동’에 동참, 무안 양파 6t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생육 시기 기상 호조로 양파 생산이 늘어 도매가격이 하락하자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농협본부도 광주·전남 상생발전 협력 일환으로 무안 양파 1천850방 (1방당 3kg, 총 6t) 공동구매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도청과 동부지역본부,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1천20t을 공동 구매하는 등 현재까지 총 8천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은 “양파 생산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주기 운동에 동참한 광주시청과 광주농협본부에 감사하다”며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할 협력 모델을 농업과 접목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교육청, 학폭예방 또래상담 담당자 역량 강화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시교육청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또래상담’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에서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역량을 키우고 또래상담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사례 공유, 올해

학교폭력 예방 사업 관련 소개, ‘컬리로 탐색하는 성향과 욕구’ 강의 등이 이뤄졌으며 또래상담자 교육 시 필요한 상담기법을 실습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정진 시교육감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을 학생들에게서 찾기 위해 기획됐다”며 “같은 연령의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진절할 조력자, 합리적 해결자, 적극적 방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미기자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국립해양유산연구 협약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는 “최근 센터 회의실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와 함께 국가유산 돌봄 사진 특별전 ‘문화유산, 내일을 잇는 손길’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돌봄 활동의 성과를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사진전은 전시공간과 시스템을 갖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와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

전시교육과는 전시공간 제공, 사진 패널 제작과 연출, 현장 관리 등을 맡고, 돌봄센터는 사진 원본 제공, 전시 원고 작성, 리플렛 제작 등을 담당한다.

/목포=정해선 기자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 특별전은 오는 8월5~31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코레일 전남본부, IT 취약계층 ‘디지털 스쿨’ 운영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최근 순천역 맞이방에서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스쿨’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코레일톡을 이용한 승차권 예매 ▲자동

발매기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코레일톡’을 활용한 주차요금 사전정산 서비스를 홍보했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디지털 스쿨을 통해 코레일 정보와 서비스에 소외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무안경찰,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무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 직원에게 최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장을 받은 김모씨는 지난 25일 오후 다급한 표정으로 농협 창구를 찾은 고객이 299천여 만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즉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범죄단체의 유도에 속아 송금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치안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호기자

김영일 제48대 광주 동부소방서장 취임



광주 동부소방서는 30일 “김영일 (56·사진) 제48대 동부소방서장이 7월1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취임 당일 오전 10시30분께 동부소방서에서 간단한 취임식을 가진 뒤 관내 대인시장 인근을 방문, 시설 현장점검을 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소방서를 만들겠다”며 “행복한 동행, 소통·배려·존중”이라는 복부 방침 아래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4년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김 서장은 1997년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에 입문해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 광주 서부·남부·광산소방서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2023년에는 제23대 광산소방서장, 지난해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을 역임했다.

/장은정기자

나홍원 제25대 광주 광산소방서장 취임



광주 광산소방서는 30일 “나홍원 (58·사진) 제25대 광산소방서장이 7월1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함평 출신인 나 서장은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광주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광주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기획팀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7월1일 소방정으로 승진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함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으로 시민 안전에 기여해 광주 소방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나홍원 서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복부 방침처럼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조직 운영과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해 품격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육근기자

인사

광주 북구 ◇4급 승진 ▲감사담당관 주영수 ▲안전총괄과 지재길 ◇5급 승진 ▲기획조정실 송창주 ▲주거복지과 이미영 ▲시장산업과 감행범 ▲장애인복지과 이승연 ▲시장산업과 이오복 ▲건축과 고종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항성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수산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전남개발공사 ◇2급 승진 ▲경영지원처장 이강국 ▲만원주택사업TF단장 이승민

◇행정3급 승진 ▲분양보상처 김세훈 ▲에너지사업처 김상천

◇기술3급 승진 ▲주거복지사업실 김천호

광주시체육회 ◇4급 승진 ▲시설부장 임유승

◇5급 승진 ▲염주팀장 정석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전보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1급 승진 ▲광주업무수질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준

결혼

▲박종덕·백미정씨 아들 준용군, 박준수(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임형순씨 장녀 지용양=7월 6일(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3층 아모르송.010-6232-3078